



NH농협금융,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나눔

NH농협금융지주 임직원 가족 봉사단이 농산물 나눔을 실천했다. NH농협금융지주는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필두로 가정의 달 맛이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나눔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회장(왼쪽 네 번째)과 안용승 남서울농협 조합장(왼쪽 다섯 번째) 및 가족봉사단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금융지주



에쓰오일,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1억 후원

에쓰오일은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문화비축기지에서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전달식'을 갖고 '함께 일하는 재단'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안종범 에쓰오일 수석부사장 (오른쪽 세번째)이 함께일하는재단의 이세중 이사장(오른쪽 네번째)과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문화비축기지에서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전달식을 열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인벤티지랩-유바오로직스, CDMO 사업화 맞손

마이크로스피어 장기지속형 주사제 및 지질나노입자(LNP) 연구개발·제조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유바이오로직스와 LNP 생산을 위한 위탁개발생산 공동사업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인벤티지랩 김주희 대표와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대표(왼쪽 세번째, 네번째)가 LNP CDMO 공동 사업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벤티지랩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 '금천하모니' 축제 참가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이 서울 금천구청 앞 및 안양천 일대에서 열린 '금천하모니축제'에 참가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하모니를 선사했다. 약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이번 축제에서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은 개막식 무대를 장식하며 지역 주민들과 화합의 시간을 나눴다. /코웨이



중기사랑나눔재단, '소품마켓 리턴즈' 오픈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중소기업주관을 맞아 16일부터 사흘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후문 문화마당에서 '소품마켓 리턴즈'를 연다.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들도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해 가전, 주방·생활용품, 의류, 잡화 등 약 3억원 상당의 후원물품 6만5000여점을 판매한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홍경안 의
시시일각

광주비엔날레(~7.9)는 2년에 한번 열리는 비엔날레와 미술관 기획전을 구분하지 못했다. 규모만 커졌을 뿐 연구의 깊이는 알았고, 당대를 바라보는 날 선 시선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비엔날레 본연의 혁신과 도전을 통한 진보적 담론 생성, 동시대예술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낙제점에 가깝다.

그럼에도 광주비엔날레는 세인의 술한 입길에 올랐다. 전시 내용과는 무관했다. 스스로를 B급으로 전락시킨 '비엔나소시지' 홍보 영상을 비롯한 광주시장의 김건희 전 코바

나컨텐츠(상업적 전시기획사) 대표 개막식 초청 발언. 단 1회로 끝난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등, 광주광역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쏟아낸 여러 논란 탓이 컸다.

이 중 지난해 2월 제정된 '박서보 예술상'은 비엔날레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 상은 '단색화'를 대표하는 박서보 작가가 한국 미술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기탁한 100만달러(약 13억원)를 재원으로 만들어졌다. 2042년까지 10회에 걸쳐 시상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6일 첫 번째 수상자에 배출했다.

미술계 안팎에선 '박서보 예술상'을 반대해왔다. 군사 독재 정권 관련 미술 권력자의 이름을 딴 상과 광주비엔날레는 정체성 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비판 여론이

비등한 와중에도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으로 보란 듯이 박서보 작가의 SNS 항변성 글에 '하트'를 날렸다. 누가 봐도 강행을 의미한다고 판단할만한 행위였다. 한데 그로부터 얼마 뒤인 지난 11일, 재단은 갑자기 "올해부터 시상을 시작한 '박서보 예술상'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이미 지급한 상금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후원금은 박 화백 측에 반환할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전시 중 폐지라는 황당한 발표와 나머지 후원금만 돌려준다는 이상한 계산법에 의아했으나 일단의 예술인들은 '환영'을 표했다. 설득력 있는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다만 상을 제정하고 매듭짓는 과정에서 재단이 보인 어설픈 고 미숙하며 비이상적인 태도는 또

다른 잡음을 낳았다.

그도 그럴 것이 재단은 상을 만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상의 명칭 및 행사와의 적합성,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해 심사숙고한 것도 아니었다. 비엔날레의 공적 기능과 민주적 절차를 생각했다면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사달의 중심이다. 공동주최인 광주광역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게 무엇이든 최종 결정도 자신들이 한다. 엄밀히 말해 작가는 후순위다. 허나 비겁하게도 재단과 시는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논란의 모든 짐을 작가 혼자 지도록 하는 듯한 행태를 하고 있다. 미술계에 패아된 반목과 불화를 제공했음에도 반성의 기미마저 없다. 뻔뻔하고도 실망스럽다.

/미술평론가

SK-하나금융, '통신·금융·미디어·유통' 결합 신사업 추진

SKT, 하나은행 등 6개사 협력
차세대 신용평가 모형 등 개발

SK ICT 패밀리 3사와 하나금융그룹 3사 등 총 6개사가 '통신과 금융' 이종(異種)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차세대 신용평가 모형 개발과 신규 상품 발굴에 나선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11번가 등 ICT 패밀리 3사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 3사는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사에서 '통신·금융·미디어·유통 데이터 결합 신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6개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업종간 고객 데이터 가명결합을 통해 ▲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11번가 등 ICT 패밀리 3사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 3사는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사에서 '통신·금융·미디어·유통 데이터 결합 신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하나증권 최원영 상무, SK브로드밴드 이철행 담당, 하나은행 황보현우 본부장, SK텔레콤 장홍성 담당, 하나카드 이석 상무, 11번가 김중호 담당. /SKT

용소외계층을 위한 차세대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통신·금융이 결합된 데이터 기반의 신규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은 각 사의 데이터를 개

인신용평가에 추가해활용함으로써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들의 금융 복지 향상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주부·은퇴

롯데, 석촌호수 수질개선 이어간다… “그린 랜드마크 조성”

송파구청 석촌호수 수질개선 MOU

롯데그룹이 석촌호수를 지킨다. 롯데는 15일 송파구청과 '2023 석촌호수 수질 개선'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롯데 물산과 지주, 롯데월드 등 계열사와 함께 롯데 백화점과 칠성음료, 케미칼까지 함께 석촌호수 수질 개선에 힘을 합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송파구청과 재단법인 녹색미래, 주식회사 켄스도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는 수질 개



롯데가 지난 15일 송파구청과 석촌호수 수질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왼쪽부터) 김만구 녹색미래 대표, 박상일 롯데월드 영업본부장, 김상우 롯데백화점 잠실점장, 류제돈 롯데물산 대표이사, 서강석 송파구청장, 이갑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감동훈 롯데칠성음료 홍보부부장, 최영광 롯데케미칼 커뮤니케이션부부장, 류영근 켄스 대표이사 /롯데

선 사업 기금 조성과 제반사항 등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송파구청은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및 기

초자료 제공, 재단법인 녹색미래는 수질 모니터링과 기술자문 지원, (주) 켄스는 수질 개선 작업을 수행한다.

롯데는 2021년 8월 처음 송파구청과 석촌호수 수질 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 유일 자연호수를 시민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쉼터로 선물한다는 의미. 2년간 노력으로 투명도가 0.6m에서 2m로 증가했고, 수질도 3급수에서 2급수가 됐다.

류제돈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수질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를 넘어, 세계인과 함께하는 그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 운영지원과장 이승희
◆한국체육대학교 △ 교무처장 조준호

△ 기획처장 박선영 △ 대학원장 김진호 △ 훈련학생처장 겸 최고경영자과정원장 김진해

부음

▲박동하씨 별세, 박용현(신한투자증권 신한PWM목동센터장)씨 부친상 = 15일,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8일 오전. 031-810-5444.

▲김병순 씨 별세, 최규석(의정부시 균형개발추진단장)씨 모친상 = 16일 오전 5시 30분, 의정부장례예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후 1시. 031-871-4444